

# 코스프레, 취미 넘어 프로의 세계로

박지훈 RZ COS팀 대표

글 강진규 객원기자(viper@techm.kr)



박지훈 RZ COS팀 대표가 코스프레를 한 모습

“코스프레를 취미로 즐기다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어서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스프레는 만화, 게임, 영화 캐릭터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즐기는 행동을 뜻한다. 이미 일본, 미국 등에서는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관련 행사와 산업도 보편화 돼 있다. 국내에서도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는 특이한 취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편견을 깨고 코스프레를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코스프레 전문팀 'RZ COS'는 코스프레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로 국내 대표적인 코스프레 프로팀으로 알려져 있다.

8월 16일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도봉구 RZ COS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순간, 수 백 벌의 의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게임 속 캐릭터들의 옷장을 모아놓은 모습이였다. 스튜디오 한편에는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폐허의 흔적들, 중세 유럽의 방을 옮겨놓은 책상과 소품들, 중국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옛 중국방 등 촬영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RZ COS팀을 이끌고 있는 박지훈 대표가 웃으며 맞이했다. 그는 “전쟁터, 중세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배경으로 코스프레 촬영을 위해 만든 공간”이라며 “소품을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여느 직장인과 다른 평범한 모습이였다. 하지만 꿈을 찾기 위해 나선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영어학원 강사도 했고 회사에 다니며 마케팅 관련 일도 했습니다. 원래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후 코스프레를 하고 사진을 찍던 중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어서 코스프레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죠.”

물론 코스프레를 직업으로 삼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초기에 자본도 없었고 어떻게 코스프레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했다”며 “처음 1년 동안은 무료로 코스프레 활동을 해주며 RZ



RZ COS팀 모델이 게임 캐릭터로 코스프레 한 후 촬영한 모습



COS를 알리는데 주력했는데 그 후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 바빠졌다”고 밝혔다.

RZ COS팀은 게임 출시나 이벤트 홍보, 게임 컨퍼런스 등 대형 행사 참여, CF나 영화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 외에 6명의 모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은 코스프레를 전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하고 있다. 소품, 분장 등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면서 게임업체, CF업체 등에서 RZ COS팀을 먼저 찾고 있다. 코스프레 모델들 역시 인기를 끌면서 코스프레 모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RZ COS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코스프레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5개팀이 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코스프레 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본 같은 경우 화보 촬영, 코스프레 행사, 전문잡지 등으로 코스프레가 활성화 돼 있어 코스프레로 역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며, “국내에서 프로 코스프레 분야는 게임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프로팀들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컸다. 게임 출시가 활발한 중국 사업도 논의를 했지만 사드 논란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RZ COS팀을 이어가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점과 팬들의 성원 때문이다. 박 대표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소품을 만들고 촬영을 준비하다 보면 밤 12시나 새벽까지 일할 때가 많다”고 털어냈다. 한편으로 보람도 느낀다. 50명 규모의 팬 미팅을 기획했는데 100여 명이 찾아왔을 때다.

박 대표는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확실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실력을 키워놔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RZ COS팀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전을 개최하고 화보집을 발간하는 것. RZ COS팀은 사진전과 화보집 발간으로 코스프레에 대한 재변을 확대하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①